

[종합]

시·설

광주일보가 20일 창사 56주년을 맞는다. 광주일보가 걸어온 56년의 역사는 광주·전남의 현대사다.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태동한 광주일보는 4·19 혁명과 5·16 군사쿠데타, 5·18 광주민주화운동 격동의 현장에서 역사의 파수꾼이자 지역의 대변자로서 그 소임을 곳곳이 수행해 왔다고 자부한다.

광주일보의 발자취는 다사다난하다. 역사의 고비 때마다 넘어졌다 일어서기를 반복한 좌절과 재기의 연속이었다. 좌절과 재기의 몸부림을 거듭한 것은 지역사회도 마찬가지다. 광주일보는 56년을 한결같이 지역사회 및 지역민과 함께 해온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또 비관과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며 시대의 풍상(風霜)을 지역사회 및 지역민과 같이 할 것이다. 지역신문이 지역사회와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광주일보가 도약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창사 56주년을 맞는 감회가 마냥 즐겁지만은 않은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다. 지역사회가 처한 오늘의 상황을 살펴보면 결코 미래가 밝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광주·전남은 프리프러머라 다던 소외와 낙후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지만 엄청난 시련에 봉착해 있다. 이 시련을 현명하게 극복하지 못하고 주저앉으면 우리는 낙후와 소외

도시, 서남해안 조선산업 클러스터 등을 아슬하게 추진하며 낙후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의 희망인 대형 프로젝트들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국가균형발전의 틀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건설은 규모가 축소되거나 빈

려 있다. 유동·서비스업은 서울의 대형 유통업체에 치여 설 자리를 잃었고 제조업은 고유가와 원자재가 인상 등으로 고전하고 있다. 여기에서 가파른 물가 상승과 교육비 증가 등으로 지역민의 호주머니는 날로 얇아져만 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 같은 지역경제의 실정을 외면한

다. 정치 권력에서 한발 비껴난 현실에서 지역현안의 추진은 그만큼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대내외적 어려움만을 탓할 수는 없다. 지역사회의 역량을 결집해 우리 앞에 놓인 난관을 돌파해야 한다. 광주일보는 지역민과 함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세력이나 행위에 과감히 맞설 것이다. 광주·전남이 세계 속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는 일이라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광주·전남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고비마다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지금도 역사의 중심에 서 있다. 지난 56년간 지역언론문화를 선도해 온 광주일보의 책임과 역할도 어느 때보다 막중함을 통감하고 있다. 우리는 지역의 대표언론으로서 균형발전과 광주·전남 경쟁력 제고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광주일보는 혼탁한 언론환경 속에서도 그 것을 탓하기보다 시대의 기록자로서 언론의 근본사명에 투철하기 위해 스스로를 채찍질할 것이다. 지역사회 및 지역민과 함께 하는 한 광주일보는 영원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민 여러분의 배전의 충고와 사랑을 바라마지 않는다.

지역 역량 모아 광주·전남 난관 극복하자

창사 제 56주년에 부쳐

라는 명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게 된다. 광주·전남에선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프로젝트들이 한창이다. 지난해 2012세계박람회 여수 유치에 성공했고 2013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가 나서며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동혁신도시 건설로 광주·전남 상생의 기쁨도 마련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J프로젝트, 무안기업

개발기반 남을 공간이 커졌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및 여수세계박람회 대한 정부 지원은 당초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J프로젝트와 무안 기업도시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지역경제도 끝모를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지역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건설경기기는 수도권 부동산 투기 유단 등으로 살아날 기미조차 없이 고사 직전에 몰

려 있다. 유동·서비스업은 서울의 대형 유통업체에 치여 설 자리를 잃었고 제조업은 고유가와 원자재가 인상 등으로 고전하고 있다. 여기에서 가파른 물가 상승과 교육비 증가 등으로 지역민의 호주머니는 날로 얇아져만 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 같은 지역경제의 실정을 외면한 채 대쪽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은 지난 40여년간 수도권에 인적·물적 자원을 빼앗겨 자생력을 잃고 말았다. 착박해진 지방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에서 수도권 규제가 풀리면 지역경제는 침몰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지난 10년간 정권 창출의 산실 역할을 했던 광주·전남은 지난해 말 대선과 4·9 총선을 치르면서 '정치적 섬'으로 전락했

이건희 회장 등 10명 불구속 기소

배임·조세 포탈 등 3개 혐의 적용

특검 '삼성 비자금 의혹 수사' 결과 발표

삼성그룹 의혹을 수사해 온 조준웅 특검검사팀은 17일 이건희(66) 삼성 회장을 배임과 조세포탈 등 3개 혐의로 기소하는 등 의혹 관련자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관련기사 4면>

3대 의혹 중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의 경우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김인주·최광해씨 등 4명에게 특검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적용됐고, 비자금 의혹의 경우 이들 4명에게 특검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정·관계 및 법조계를 대상으로 한 불법보좌 의혹의 경우 감응형 변호사의 진술을 토대로 배임 대상자 등을 내사했지만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내사종결 처분했다.

기소 대상은 이건희 회장과 현명관(66) 전 비서실장, 이학수(61) 전략 기획실장, 유석렬(57) 삼성카드 대표, 김인주(49) 전략기획실 사장, 김홍기(61) 전 삼성SDS 대표, 박주원(54) 삼성SDS 마케팅인장, 최광해(52) 전략기획실 부사장, 황태선(60) 삼성화재 대표, 김승언(50) 삼성화재 전무 등 10명이다. 이 회장과 이학수·김인주·최광

해씨에게는 특검가법상 배임과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가, 유석렬·김홍기·박주원씨에게 특검가법상 배임 혐의가, 황태선씨에게 특가법상 횡령 혐의가, 김승언씨에게 특검법 위반(증거인멸)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특검팀은 17일 오후 2시 서울 한남동 특검 건물 6층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회장과 그의 처명재산을 관리한 전략기획실 핵심 임원들인 이학수·김인주·최광해씨에 대해서는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을 승인하고 그룹 비서실이 계열사에 사채 발행과 인수를 지시하도록 해 최소한 96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검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가 적용됐다.

이들 4명은 또 삼성생명 2조3천억원에 포함해 4조5천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1천199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계열사 주식을 매매해 남긴 차익 5천643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1천128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회장의 경우 주식소유변동 상황을 증권감독 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추가됐다.

현명관은 또 삼성생명 2조3천억원에 포함해 4조5천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1천199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계열사 주식을 매매해 남긴 차익 5천643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1천128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회장의 경우 주식소유변동 상황을 증권감독 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추가됐다.

■ 삼성 특검 수사 사법처리 대상자

Table with 2 columns: 이름 직책, 예상 적용혐의. Rows include 이학수 전 전략기획실 부회장, 김인주 전략기획실 사장, 최광해 전략기획실 부사장, 유석렬 삼성카드 사장, 현명관 전 삼성생명 회장, 김홍기 전 삼성SDS 사장, 박주원 전 삼성SDS 경영지원실장, 황태선 삼성화재 사장, 김승언 삼성화재 전무.

요 문화재단 별칭 공모

내달 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는 광주광역시에 건립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별칭을 내달 5일까지 공모한다.

공모는 내외국인이 쉽게 부를 수 있는 친근함과 광주와 아시아 문화를 잘 담아낼 수 있는 표현력 등을 심사 기준으로 정했다.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문화부(www.mct.go.kr)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www.cct.go.kr) 홈페이지 참조.

/김지용기자 dok2000@

광주 인권상에 말리크 변호사 수상

파키스탄 인권 변호사 공로

5·18 기념재단은 "2008년 광주 인권상 수상자로 파키스탄의 인권변호사인 무니르 말리크(Muneeq A. Malik·사진)씨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관련기사 10면>

2008년 광주인권상위원회(위원장 노영민 국회의원)는 말리크씨를 선정함에 대해 "지난 30여년 동안 파키스탄의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주의 회복과 인권신장 등을 지속적으로 펼친 점을 인정, 광주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어 "파키스탄의



정치·사회적 상황이 과거 우리가 경험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광주인권상이 파키스탄의 민주·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불의에 맞서 싸운 수상자의 희생과 노력이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시상식은 다음달 18일 오후 5시 광주시 서구 5-18 기념재단에서 열리며 수상자에게는 미화 5만 달러와 금장메달 등이 주어진다. /이중형기자 golee@

박화강 '국립공원' 이사장 사의

김재현 토공 사장·박세흠 주공 사장도 퇴임

박화강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이 17일 환경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이사장은 한겨레신문사 창간위원 출신으로 사회부 국장대우를 지낸 2004년 퇴사해 2005년 국립공원관리공단 감사를 거쳐 2006년 7월부터 이사장을 맡았으며 임기는 내년 7월까지였다.

환경부 내 산하 기관장 중 손주석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은 지난달 중순 사의를 표명했고 장준영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조만간 사표를 낼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박세흠 대한주택공사 사장과 김재현 한국토지공사 사장, 광경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18일 퇴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들 공공기관장들이 제출한 사표가 청와대에서 수리돼 18일 임명식을 갖고 물러날 계획이다.

박 사장은 작년 3월 초에 임명돼 1년1개월여만에 물러나며 김 사장은 작년 12월에 3년 임기를 채운 뒤 1년 연임됐다. 광 사장은 오는 9월에 임기가 끝날 예정이었다. /연필뉴스

"전남 친환경쌀 밥맛 최고예요"

'여성 소비자가 뽑은' 2년 연속 1위 선정

전남도의 친환경쌀이 2년 연속 여성소비자가 뽑은 품질·서비스 1위 자리를 지켰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여성신문사가 주최한 '제10회 여성소비자가 뽑은 품질·서비스 1위'에 친환경 전남쌀이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선정됐다.

올해 평가는 지난 2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건강·위생, 건설, 가전·의

구, 생활용품, 의료, 교육기관, 화장품·헤어, 식품·음료, 자동차, 소금·의식, 여행·숙박, 공공기관, 금융·서비스 등 13개 부문에서 이뤄졌으며 친환경쌀은 특별상으로 지난해부터 포함됐다. 시상식은 18일 오전 11시 서울 롯데호텔에서 여성계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이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역의 이미지를 전국에 각인시키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김주정기자 jnews@

빛의만정

- 김중두



언제나 독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광주일보 光州日報 광고접수안내. ☎(062)220-0553, FAX:227-9500

분묘개장공고(1차). 2008년 4월 18일 위공보조 20일 열

자본감소공고. 본 회사는 2008년 4월 17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자본의 총액 270,000,000원을 250,000,000원으로 감소하고 그 방법으로 1주의 금액 30,000원의 주47,000주에 대하여 25,000주의 비율로 유상삭감하여 발행주식의 총수가 25,000주로 감소할 것을 결의하였음.

세계 최고의 Digital Shipbuilder. 제 20기 기술연수생모집. 유엔경제사회의 Global Leader 현대상호중공업(주) 기술교육원에서 권위적이고 성실한 기술연수생을 모집합니다.

산행안내. 4월 19일(토), 20일(일), 21일(월), 22일(화), 23일(수), 24일(목), 25일(금), 26일(토), 27일(일), 28일(월), 29일(화), 30일(수), 5월 1일(목), 2일(금), 3일(토), 4일(일). Various hiking routes and schedules.

광주광역시 2008년 4월 17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자본의 총액 270,000,000원을 250,000,000원으로 감소하고 그 방법으로 1주의 금액 30,000원의 주47,000주에 대하여 25,000주의 비율로 유상삭감하여 발행주식의 총수가 25,000주로 감소할 것을 결의하였음.